



# 인류의 위대한 '발견' 기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베른하르트 랑 편저  
황정례 옮김  
휴먼앤 북스 | 8천원

고대문명~현대  
종교·문화 초월해  
절실한 믿음 담긴  
기도 100편 엮어

"우리가 변성할 수 있도록 허락주소서!" "아테네인의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부처님, 당신은 병들고 불순한 세상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저마다의 대상을 찾아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희망해 왔다. 오랜 가뭄이나 흉년이 들 때, 혹은 사냥을 하거나 항해를 떠날 때, 자식이 생기지 않거나 자녀의 행복을 빌 때 등 바람과 대상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의식을 행해왔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해온 익숙한 행위이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 민족과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고 광대한 기도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 1백편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출간됐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이 책의 지은이는 현재 독일의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베른하르트 랑(59)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아름답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기도문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아름다운 기도문이란 결코 정황하고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함 속에 깊은 신앙심이 담겨 있어 그 간결하고 절실한 마음의 울림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도문의 범위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단순히 잘 알려진 내용에 국한 시키지 않고 문자가 없던 시절부터 고대 문명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종교·문화의 경계를 넘어 아름답고 다양한 기도문을 선정했다. 이렇게 여러 문화권의 믿음을 담아낸 순수한 언어들을 통해 현실에 찌들고 답답한 마음을 벗어나며 인류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지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묘미 중 하나다.

문자 없는 이들의 기도는 문명의 색채 없이 직설적이기만 하다. 그래서 더 절실하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바보롱족은 '아침 기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신성한 아버지시여! 저는 굶주린 채 잡 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허기진 채 잡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고대문명의 한 건설자였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집트 18 왕조 후기 파라오 중 한 명인 에크나톤은 태양신을 찬양했다. "당신이 서쪽에서 질 때면, 만물은 죽은 듯이 잠듭니다. 당신이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는 아침이 올 때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어둠이 깃들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지은이는 플라톤의 기록을 빌려 소크라테스의 절실한 바람이 무엇인지 들려준다. "여기 살고 계시는 모든 신이시여! 제 내면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결모습 또한 저의 내면과 일치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같은 기도보다 더 소크라테스의 인간됨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글이 또 있을까.

중세 유럽의 대표적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그는 은총을 바라며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를 동등하게 한다"고 말했다. 악성 뇌 종양으로 격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뜬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병중의 기도'를 통해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고 찬양하도록 해주소서"라고 빌었다.

일본 정토종을 개창한 승려 호넨은 부처와 가르침(다르마)과 공동체는 불교의 세가지 보석이라는 의미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저는 불자들의 공동체에 귀의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매일 예불때 드렸다고 한다.

지은이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며 소설의 작가인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기도 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디미트리이는 "저를 심판하지 마소서"라고 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불경 때문은 아니다. 그는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모순에 찬 답변을 한다.

이렇게 다양성과 방대함 속에서도 이 책의 기도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힘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메마른 영혼을 위로하고, 아울러 신앙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자는 것이 지은이가 말하는 이 책의 존재 목적이다.

김주익 기자 jikim@buddhapia.com



CEO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9백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잘나가는 의사에서 일약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안철수연구소 대표로 변신했던 지은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나같은 사람에겐 등대같은 존재다.

세계경제포럼의 '차세대 아시아의 리더 한국대표 18인', 비즈니스위크의 '아시아의 별 25인'에 뽑히기도 했던 그는 이 책에서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제2의 성장엔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그중 핵심이 바로 'A자형 인재'다.

지은이가 말하는 인재상이란 'A'에서 처럼 사람(인)자와 그 사이를 잇는 선이 삼각 균형을 이루는 상태, 즉 전문성·인성·팀워크의 세 가지 능력을 고루 겸비한 인재를 말한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T자형(전문성과 연관지식을 갖춘 인재)에 팀워크를 높이는 능력이 추가된 개념이다.

10년 전 서울 서초동 뒷골목에서 3명으로 시작해 매출액 20%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3백여명의 통합보안회사로 성장한 이 회사의 숨은 힘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이는 곧 '영혼이 있는 승부'로 세계적 멘토 반열에 오른 그의 21세기 인재관이며 개인·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안철수 방식'이기도 하다.

## 'A자형' 인재의 자질 세가지

그는 먼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그 분야의 지식과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 문제해결·개선능력, 창조력, 고객지향성 등 5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강조한다. '인성'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정신, 긍정적인 사고방식, 사명감과 공익정신을 핵심 요소로 든다. 팀워크 능력을 키우는 데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생각,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커뮤니케이션 능력, 후배양성 능력, 동기 부여와 연계된 리더십 등을 중시한다. 결국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자신이 맡은 일은 잘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이 한계를 뛰어넘고 조직과 인재가 입체적으로 '원활'하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성장동력이다. 그는 또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까지 이끈 키워드가 '제조업'과 '위험 감수'였다면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키워드는 '지식정보 산업'과 '위험 관리'라고 얘기한다. 아울러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정' '기초와 기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절실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이와같이 이 책을 꼼꼼히 읽어나가다보면 조직의 성장정체 위기를 극복해낸 실제 경험과 우리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안철수 방식'으로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와 조직 구성원이 가져야 할 자질과 업무방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21세기 한국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와 젊은 세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책을 덮는 순간 희망이 생기게 한다.

정해순(에스앤에스산업 대표)

## 행

인류평화기원 및 유주무주 애혼 영가 극락왕생을 위한

# 대운산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 조성기념 만등불사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 정성으로 귀의합니다. 묘림사와 과거 현재의 인연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자님들께 소승 두손 모아 감사드리오며 불자님 가정에 일체 액난이 소멸하시어 뜻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원만 성취 이루시길 한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장대불을 조성 봉안하고자 함께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제 지장 대불조성 회향을 아래와 같이 알리게 되어 소승 너무나 큰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크

나쁜 기쁨을 부처님 전에 회향 올리며, 인류평화기원과 유주무주 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8m 높이(28자)의 지장대불 불불점안식과 대법회를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봄날에 갖고자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소멸하시고 선근인년 복덕을 지어 세세생생토록 복락을 누리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운산 자락에서 관진 합장  
불기 2549년 1월 좋은날



▶ **지장대불 점안법회 안내**

증명법사 우룡 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 일시: 불기 2549년 3월 6일 일요일 (음, 을유년 1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대운산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전

▶ **만등불사 점등식 및 전야제 안내**

- 일시: 불기 2549년 3월 5일 토요일 (양력) 오후 7시
- 장소: 노천 지장대불전 ●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 온라인번호: (예금주 묘림사)  
조흥은행 922-03-003246 부산은행 032-01-045509-9  
농협 815040-51-035170

※ **차량운행안내**

- ▷ 범어사 전철역 시립공원묘지 입구에서 매일(오전 9시 30분) 차량운행대기
- ▷ 양산시장 파출소 앞 수시운행

가족과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는 도량 **대운산 묘림사** 주지 관진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778번지 전화 052)237-4366. 238-6264 (팩스겸용)